

모두가 주인공인 세상

September, 2020 | 윤혜정 에디터



© Candide Höfer, 2017. Original: Bibliothek der ÖNB Wien.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Candide Höfer, 2017. Kunst, Bonn

ART ESSAY

# 모두가 주인공인 세상

“어떤 사진이 의미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진의 과거와 미래를 덧붙이는 것이다.” 존버거가 말했듯이? 이러한 시간의 주관성은 내 휴대폰 속 사진뿐 아니라 칸다다 회파의 작품에도 공히 적용된다.

**실** 현가능성을 만나 언젠가 기획하고 싶은 전시가 있다. 한 공간에 단 한 작품만 놓아두는 것이다. 한 시간에 한 명의 관객만 입장할 수 있는 데, 이 유일한 관객에게는 작품 훼손을 제외하고 완벽한 자유가 주어진다. 노래를 부르거나, 신발을 벗거나, 바닥에 누워도 좋다. 여력이 된다면 하루에 한 번, 작품을 교체하는 건 어떨까 싶다. 작품으로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분할하는 셈이다. 전시라는 시간을 둘러싼 시간간의 개념을 전복하는 시도라는 거창한 설명도 그럴듯하다. 요즘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빛’ 집의 작품, ‘빛’명의 방목객에 집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작품과 관객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다. 이런 형태의 전시는 관객 모두를 VIP로 만들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나 위한 전시가 펼쳐지고, 그 작품은 그/그녀의 기억에서 영속한다. 전시의 진짜 주인공이 될 관객은 ‘여기 내가’ 있다는 사실만 만족하면 된다.

이러한 상상은 러너 전용 애플 현대미술관에서의 경험에서 기인했다. ‘사실인’이라는 제목의 전시는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다양한 미술 담론을 생산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그 전시장에 걸려 있던 캐롤라인 리히터의 작품과 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오히려 칸다다 회파(Candide Höfer)의 작품이 훨씬 더 잘 어울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그녀 작업으로 이런 전시를 열어야 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보통 미술 공간에서 관객이 한 작품 앞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15초 내외라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회파의 사진 앞에서는 15분 혹은 한 시간, 아니 종일 있을 수도 있다. 보편적 세계에서 통용되는 시간 개념은 무색할뿐더러 다른 질서로 치조된 다채로운 시간이 흐른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15년 포도밭길 감독 후이 사비르르가 칸다다 회파의 작업과 전시 과정을 담아 연출한 다큐멘터리 제목은 공교롭게도 Silent Spaces였다.

‘현대사진의 가장 중요 일면이어서 칸다다 회파는 다양한 건축물의 공간 내부를 명료한 시선으로 담은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세기 초 산업구조의 상징인 건축물을 객관적으로 응시한 흑백사진으로 “건축의 유희학”을 주장한 배허부의 수제자로도 유명하다.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 공적 공간에 집중하는 그녀의 사진은 단순히 건축사진이 아니다. 건축은 회파 작업의 구조이자 재현의 고찰의 그릇일 뿐, 오히려 지난 50여 년 동안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관찰, 사유해왔다는 점에서 공간의 초상이자 몇 개의 이야기다. 기령 초상이 현재 모습을 통해 대상이 살아낸 시간과 사연을 짐작하게 하듯, 회파가 포착한 사진에서는 공간의 목적과 역사, 그 자체 물리적 이거나 사회적 존재감이 느껴진다.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는지, 그 삶은 어땠을지, 여기에서의 시간은 그들에게 무엇이었는지, 그리하여 동서를 막론하고 어떤 공간이 지금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전하던 다른 세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칸다다 회파의 작업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함께 거론되는 몇 가지 특징은 이런

사유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일단 그녀의 사진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제의 건축'이라 불린다. 인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빛, 건축 형식, 패턴 등을 통해 역설적으로 해당 공간에 갖은 인류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존재감을 상기시킨다. 또 저급한 회피를 시로같은 공적 공간이 문화 역사를 건인한, 엄밀한 예나지가 함축된 개념들의 공간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생각해보면 문명은 공간과 인간의 물리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같은 이유로 회피는 공간이 최대평가되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안공 조명을 절대 활용하지 않는다. 본연의 빛과 조명만으로 공간을 완벽하게 담아내기 위해 언제까지고 기다리는 건 그녀 작업의 필수 과정 중 하나다.

개인적으로 칸다다 회피의 사진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이런 과정을 거쳐 공간의 모든 디테일을 명료하게 표현해낸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사진 속에서는 천장의 상투리에도, 벽 장식도, 의자의 재질도, 바닥 문양도 모두 공평한 긴장감을 품고 있다. 예컨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박물관 시대의 수도원 도서관'임을 미리 알지 못해도 압도되기에 충분한 건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디테일이 함께 나오는 동시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우열조차 가릴 수 없도록 하는 총체적 통찰력 덕분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공간의 디테일이던 당대의 기호나 취향 혹은 기능을 짐작하는 단서로 쓰이지만, 그녀 작업에서는 하나의 장소를 이루는 사회적인 핵심 요소다. 사진 속 디테일일

일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자연의 시간이 느리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이러한 느릿한 시간은 모든 디테일을 살아 있게 한다.

"디테일에 영예를 부여하는" 이러한 시도는 지난 5백여 년 동안 서양의 미술사와 철학사를 지배해 온 원근법의 범주를 아예 잊도록 만든다. 사진이 소실점으로 수렴되고 있음에도 평면적인 이 영토엔 '플래너드'는 그래서 더 강아졌다. 서양의 원근법은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에 효과적으로 안착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간의 눈으로 공간을 해석하고 디테일이 사상의 눈으로 세계를 재편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탐험하고 정복한 회피의 작품 속 원근법은 (인본주의를 가정하) 인간중심적이거나 (객체를 명치하) 권위자향적인 시선과 가장 거리가 멀다. 오히려 모든 디테일을 심필하는 느린 시간은 세상을 보는 사람(주체)과 보여지는 대상(객체)으로 이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세계와 이 세계를 하나로 융화시킨다.'

"당신의 사진이 모두를 평등한 주인공으로 만드는 데는 눈을 관통하는 약가로 서면 시각 혹은 인물이 반영된 게 아닐까요?" 2년 전의 인터뷰에서 칸다다 회피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녀가 작게 웃으며 답했다. "나를 너무 높이 사는 것 같군요. 디테일과 전체를 공히 중요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사진이라는 매체의 능력입니다." "사진 매체 자체가 태생적으로 우연성과 좌우성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 무엇보다 연출하지 않지 않



«Eliptharmonie Hamburg, B&WB, Horstrog und Pierre de Meuron Kabinett Basel, CH 2016»  
Copyright, 180x226, 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ul Gallery  
© Candida Hofer/VG Bild-Kunst, Bonn



«Botta Chioschikönig (2013), C, pr. 1, 180x241, 7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ul Gallery  
© Candia Hofer/VG Bild-Kunst, Bonn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는 칸다다 회피 복속의 정세된 작업 방식은 매우 낯선다. 나는 그녀의 사진이 상연하거나 순상에 보이던지 모르지만(가나) 파종되는 느낌이 들: 이유가 있겠지. 예술 사이의 유제와 역한에 충실하고 작자: 직접 출현 때문이던 것 같다.

칸다다 회피는 물론이고 중요하다. 서적에서도 인상에서도 군 내리기 있다. 1970년대 필름으로 아수한 디지털의 공간을 촬영해 그녀가 이 두 사람이 통렬하: 사진을 찍지 않은 것 역시 자신의 카메라가 그들의 삶에 중립하게 개입하: 건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고, 대상의 공간에 전율리 복귀한 마음들이 다시 않는 것도 이 중심을 취회한다는 회피를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현대건축물에 주목하: 시도는 평생 직인 사냥 권유를 전형적인 심미성이 기대시 않으로는 의식, 유행이다. 칸다다 회피는 지만 공간상의 메이: 크럼, 나일원계은 비이 있는 힘 배 판은 일상의 공간은 수비 된 연속시켜 같은 척의 혹은 파우스트 대립으로써 현실안이 모두를 지켜 있게 된듯다. 회피는 크럼 보비안이 크럼: 장교를 개조해 인본: 열도일하고나 후시드를 사진에 감동하는 전 스타다티움:공통이나 일도적인 건물의 스케일과 역사:내론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이미:지정된 건축의 외 도형 사진을 권본: 작업실에 걸어두지 않았더라면 그 전상상이 삼만으로 수렴될지라도 모겠다.

칸다다 회피의 작업은 15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우물시반 회상이라는 플랫폼에선 색면으로도 지루하게 다가 올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이 만들어져 오고 있다. 그때 그녀가 더 원기왕성했고, 7만발 정도의 필름을 찍었던 것 같다. 회피도 내게 나의 그녀는 것은 이름에겐 전쟁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름 없이 죽어간 병사에 나를 대입하: 달친 주변에 이나와 사할한 주변에 전쟁이인 하는 것나 다름없다. "주인공은 나의 내라는 어느 이름 그룹이 재향에도 될 로 상하지 않는 건 세상은 크:사하:나:인생의 주인공으로 돌아내기도 느리지 않다는 걸 이미 이미:비했기 때문이었다.

오늘 나는 칸다다 회피의 사진속 또는 빛에서도 영혼의 외관: 존재를 발견한다. 그때의 내 눈은 가늘고 한 많은 공간을 뚫어 볼 듯: 여념이 없었지만, 이제:는 나의 시계가:알려나:의 공간:아:로:우연히:중용:수:있다:던:기:가:그:작품:앞에서:몇:시간:을:보:면:수:있다. 15년 전 나의 사진이 사진:중:심:으로:부:려:수:있:을:장:하:거나:이:에:주:연:을:기:회:면:보:지:않:았:다:던:지:우:는:하:리:다:의:가:장:가:리:를:살:려:거나:광:경:의:적:은:불:빛:을:감:미:하:고:시:선:과:이:우:를:순:다. 이:는:한:년:내:회:였:지:우:는:계:는:다:테:일:없이:이:지:를:공:경:하고:영:상:한:공:경:의:소:상:을:보:니:두:가:주:인:공:경:의:세:상:을:꾸:꾸:기:회:리:다:던:그:때:상:상:소:지:못:했:다. ■■

글: 문예진흥원 재단에서 발행되는 '다테이' 9월호에 실렸다.  
※ 칸다다 회피의 개인전이 9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열린다.